

# ‘선거특수’ 업종간 희비 엇갈려

## ■ 5·31지방선거 D-60

5·31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특수를 기대했던 업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면서 간판·현수막·명함 제작업체와 점집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음식점업 등은 강화된 선거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울상이다.

선거특수를 가장 톡톡히 누리고 있는 업종은 간판업체, 그동안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히 규제했던 선거운동방식이 올해부터 다소 완화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간판, 현수막, 현관 1개씩을 게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북구 오치동에서 현수막 제작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박경호(47)씨는 “오늘만 현수막 주문을 두 개가 나왔다”며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제작될 수 있도록 주문한

## 간판·현수막 예비후보 등록후 게시 가능 ‘호황’

## 선거법 강화 음식점·여행사 매출 떨어져 ‘울상’

것도 대어섯게 된다”고 말했다.

또 광산구 월곡동의 한 업체 사장인 최윤덕(여·34)씨도 “지난 총선거기간에는 한 두 건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섯 건의 주문이 들어왔다”며 “선거 초기라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선거법 규정이 완화돼 경영이 예전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 구의원에 출마한 조남일(44·서구나)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내걸면 홍보효과가 적지 않다”며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걸 수 있도록 이미 제작을 맡겨 놓았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포도 가능해져 이에

따른 수요도 적지 않다. 더욱이 광주·전남에 서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410명을 뽑는 지방선거는 총선 등에 비해 후보자가 많아 간판제작업체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낼 전망이다.

이에 못지 않게 점집 역시 호황이다.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숙인 김모(여·48)씨는 “요즘 하루에 5~6건 당 선 여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I역술인 이모(55)씨 역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부적 손님이 늘었다”며 “하루 3~4명의 손님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울상인 업체들도 있다. 대표

적인 곳은 음식점 등 음식점업. 평소 같은 면 단체 손님 등으로 불릴 곳이지만 선거철을 맞은 요즘 오히려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후보자들이 공개적인 모임 등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곡성 석곡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전모(46)씨는 “매출이 평소보다 20%가량 떨어졌다”며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상무지구의 음식점 주인 김모(여·52)씨도 “선거가 본격화 된 이 달부터 손님들이 관연히 줄었다”며 “선거 때문에 애꿎은 식당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속상해했다. 여행사 역시 선거기간 매출감소를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H항공 오모(47)씨는 “평소 관광서 수요가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외국 시찰 등 여행 계획을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취소하는 바람에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시설

### 여수엑스포 민간중앙유치위 구성 서둘러라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2012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이 빠르게 가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수엑스포 정부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표활동을 벌여야 할 민간중앙유치위 구성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던 모그룹 총수가 최근 갑자기 불거진 비자금 수사로 인해 대외활동에 나서기 어려워 언제 중앙유치위가 구성될지 불투명하다.

민간중앙유치위 구성 차질로 전세계 9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표활동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나 모금도 불가능해 해외홍보는 입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로코 탕헤르나 폴란드 브로츠와프 등 여수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타 국가들의 활발한 대표활동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상태라면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낙관하기 어렵다. 아직도 낮은 인지도에 부족한 교통·관광인프라로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현지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역시 미흡하기 그지없다. 1년3개월전 여수엑스포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놓고 사실상 손놓고 있다. 엑스포는 외교통상부와 건교부, 산자부 등 관련부서들이 모두 나서서 유치를 담당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유치의지가 있다면 민간 중앙유치위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 유치를 위한 활동시한이 2년도 남지 않았다. 중국정부의 총력 외교전에 밀려 상하이에 개최권을 빼앗겼던 지난 2002년의 실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이 필수적이다.

### 선거앞둔 공직감찰, 정략적 악용 경계한다

정부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공직감찰에 나섰다. 사정(正正)기관이 총동원된 공직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 감찰이 예고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감사원도 내부부터 연인원 1천명을 투입해 공직자들의 줄서기나 그린벨트 불법 훼손과 같은 ‘선거철 5대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선거철만 되면 당선이 유력한 인사를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심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표를 얻기위해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지가 큰 행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도 많았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감찰은 정치적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이슈를 ‘지방권력 심판론’으로 부각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이번 공직감찰을 열린우리당 선거캠페인과 연관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력한 대권주자가 단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표적 감사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사적인 감찰 시스템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공직사회기강이 갑작스레 무너졌는지 의문이다.

차제에 자치단체 감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로는 자치단체가 자체 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감사원 회계감사, 행정부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여러단계에 걸쳐 중복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자치단체 바리는 감사원 감사나 행정부 감사로 엄격히 추궁하고 일상업무 감사는 대폭 줄이는게 합당하다. 공직사회 감찰에 한치의 허술함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미묘한 시기의 감찰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 광주 3개 구청장 후보 내정

### 민주, 탈락 후보들 전략공천 반발

- 북구청장 송광운씨
- 서구청장 전주언씨
- 광산구청장 전갑길씨



송광운 후보 전주언 후보 전갑길 후보

민주당은 송광운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광주 북구청장 후보에, 전주언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내정했다. 광산구청장 후보는 전갑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략공천을 통해 선정된 광주지역 3개 구청장 후보들을 오는 3일 중앙당 공복위에서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복위에서는 광주지역 3개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추인은 물론, 박주선 전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는 문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공복위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안건들이 처리된다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박광태 현 시장이 단독 후보로 남게되며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박준영 지사와 국창근 전 의원의 2과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은 “전갑길 전 의원이 한화갑 대표의 광산구청장 후보 제의를 수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특히 “북구청장 내정자인 송

광운 전남 부지사는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중앙은 물론 지방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전주언 서구청장 후보는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뒤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고위 간부를 지낸 자수성가형 인물”이라고 내정자로 확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광주지역 구청장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9월 이후 당내 지지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동향을 통해 여당의 어떤 후보와 대결해도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경쟁력이 입증됐음에도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 못하는 이번 전략공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3일 중앙당 공복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예비후보들도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전략공천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순천·광양 통합 논의 유보”

#### 전공노 여수지부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여수지부는 지난달 3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에서 추진 중인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내 3개 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1일 이날 회견에서 전공노 여수지부는 “소지역감정을 조정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에 의한 비전 제시가 결여된 통합 논의를 우려한다”면서 “통합 논의에 앞서 2012세계박람회라는 시대적 현안을 공유, 각자의 소임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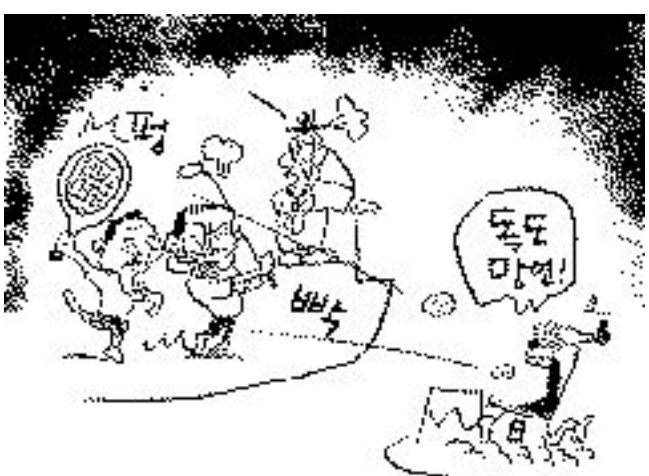
/여수=김호정기자 kjkang@

### 本社辭令

▲姜成勳 : 편집국 사회2부 여수주재기자 (4월1일차)

## 빛日만평

- 김중두



골프, 테니스는 이럴때 하는거요

## “광주시장 전략공천 논의한 적 없다”

### 정동영의장 밝혀… 조영택 경선참여 여부 주목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당 중앙위 회의에서 “광주시장 후보는 전략공천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오는 5일 입당 예정인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의 경선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49차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이 정 의장에게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한다는 인문보도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이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구태정치라며 분노하고 있다. 광주에 전략공천을 한다는 말이 사실이나”고 공개적으로 문자 이갈이 답변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이 중앙위 공개석상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김 위원장은

“열등연 사무총장도 광주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영입 후 자유경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은 “경선은 후보를 선정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만 공정한 게임이 전제·담보돼야 그 의미를 살리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는 저와 광주시당을 장악하고 사실상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기록권을 쥔 최과의 경선은 공정한 게임일 수 없다”며 경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전 실장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열린우리당은 과정과 분열이 아닌 단합된 모습으로 임해야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의 성지 광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진정한 시민후보와 시장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日 교과서 왜곡 규탄’ 화형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문과과학성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화형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합평나비축제 외지인 비율 가장 높아

지난해 열린 45개 문화관광축제 중 지역주민을 제외한 외지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축제는 합평나비축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2005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합평나비축제의 외지인 점유율은 97.2%로 가장 높았고, 화천산천어축제(95.6%)와 보령머드축제(95.1%)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지관광객 비율이 가장 낮은 축제는 광주김치축제

(17.6%)와 울주옹기축제(17.8%)였다. 대구약령시축제(20.3%)와 부산광안리어방축제(35.1%), 하이서울페스티벌(38.0%)도 외지인의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외지관광객의 비율만 갖고 성공적인 축제 또는 바람직한 축제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 “역설적으로 외지관광객 비율이 낮으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축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강금실-김재록 긴밀 관계”

### 한나라 “이현재씨 소개로 여러 차례 식사”

열린우리당 “근거없는 주장 법적대응”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김재록씨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김씨가 지난 2002년 여러 차례 식사를 함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재록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이한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전 장관과 김씨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소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김씨는 이 전 부총리, 오호수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회장 등과 함께 강 전 장관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이 금융계 및 증권계 일을 수임토록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원인 이종구 의원은 “강 전 장관과 김재록씨는 지난 2002년 강 전 장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현재 전 부총리가 주재하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면서 “강 전 장관은 김재록씨 상가에 조문도 했으며, 강 전 장관이 김씨를 만나기 위해 여의도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사무실을 찾았다는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호수 회장은 강 전 장관을 증권협회장 고문으로 밀고, 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업무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김재록씨가 영광 동향 출신으로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김재록씨의 동생인 김재갑씨가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안희정, 김민수 청와대 대변인 등 노무현 대통령의 386 참모모임인 ‘제3의 힘’ 창립준비위원장이었으며,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외에 J, L, K의원 등 중진 의원 역시 김재록 씨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아무 내용도 없이 지방선거 후보 예정자, 정치인, 경제인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며, 우리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喆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교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 F A X 222-4267 >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